

流配漢詩에 나타난 現實認識

梁 淳 珉*

I

유배란 유배당한 당사자로서 개인적인 생애에 있어 지극히 불운하고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유배적 사실과 분위기,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심적 상황을 시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창작하는 직접적 동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유배자들은 유배생활을 그들의 자기완성을 위한 소중한 창조적 공간으로 만든다. 현실에서 격리되었을 때, 그러한 정치·사회의 소외상태에서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여러가지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러한 모순에 대한 전체적 극복 논리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유배생활을 서재생활로 바꿔서 깊은 학문 연구에 몰입하거나, 유배지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현실을 개혁할 이론을 확립하거나 시문을 쓰는 창조적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만약 사대부들이 유배당하는 불운이 없이 벼슬아치의 무난한 행복만으로 살았다면 이러한 창조적인 문학활동의 기회가 없이 단순한 관리로 그 생애가 끝났을지 모른다. 그러나 유배자들에게 닥쳐온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추방으로

* 제주대학교 교수

말미암아 유배당한 사대부 지식인들은 무엇인가를 쓰는 사람이며 본질적으로 정치나 관변에만 소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배문학은 바로 이런 계기에서 형성된다.

이 글은 제주섬에 유배된 조선조의 사대부들의 유배문학 특히 한시에 나타난 현실인식을 대강 살펴 보는데 그 의도가 있다.

II

茶山 丁若鏞은 유배지 강진(康津)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답장에서 다음과 같이 시학의 정신을 밝혔다. 곧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며, 어지러운 시국을 가슴 아파하고 퇴폐한 습속을 통분히 여기지 않는 것도 시가 아니며, 진실을 찬미하고 허위를 풍자하며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사상이 없어도 시가 아니다.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¹⁾

이어

그러므로 의지가 확립되지 못하고, 학식이 순정하지 못하며, 큰 도를 알지 못하고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으며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가 시를 지을 수 없다. (故志不立學不醇 不聞大道 不能有致君澤民之心者 不能作詩)²⁾

라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위에서 살핀 丁茶山의 시관은 그가 유배생활 중에 밝혔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의가 있다.

그가 한 평생 험빛고 굶주린 백성들을 연민(憐憫)의 정으로 걱정하였고, 유배생활 동안에도 이 걱정을 남의 것이라 여겨 버리지 못하였기에 ‘平生黎庶憂困窮猶未冊’이라는 시관을 확립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丁茶山의 시관은 비록 그것이 평소의 자기 소신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茶山의 시관으

1) 茶山詩文選, 文, ‘寄淵兒’ 大洋書籍, 1975. p. 240.

2) 앞의 책, p. 240.

로 확고하게 굳혀진 것은 바로 유배생활이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곧 그것은 丁茶山이 유배지에서 보고 들은 현실인식에 대한 자기의 확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가 유배지 강진(康津)에서 1803년에 지은 7언시 「哀絶陽」³⁾은 다산이 살았던 조선조 후기 사회의 삼정(三政) 가운데 하나인 군정(軍政)의 문란으로 파생된 백성들의 질곡과 같은 삶을 소재로 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시란 세상을 근심하고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야 하는 것이며, 항상 힘없는 백성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측은하게 여겨서 이를 버리지 않으려는 뜻이 내재되어 있어야 비로소 참다운 시라는 시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게 된다. 한마디로 나라를 걱정하고, 어지러운 시국을 가슴 아파하고, 퇴폐한 습속을 통분히 여긴 다산의 현실인식인 것이다.

그의 「田間記事」⁴⁾에서도 계속되는 가뭄 속에 유랑민들이 길을 메워 차마 눈뜨고는 쳐다볼 수 없는 참상이어서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상황을 표출하고 있어 다산의 현실인식(現實認識)의 일면이 잘 표백되어 있음을 본다. 이 작품을 통해서 곧 시인의 이해만을 형상화한 것은 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시인의 지기(志氣)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만큼 학문이 순정(醇正)하고 대도(大道)에 들어서야 하며 국리민복의 뜻이 있어야만 시를 쓸 수 있다. 지기가 확립된 후에야 현실의 참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점을 쉬 이해하게 된다.

문학이 결국 인간생활의 현실을 그리는 것이라면 현실이란 무엇인가.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고뇌, 분노, 원망, 슬픔 따위가 시로 승화되어 나타날 때 진실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곧 그것은 시는 인간 감정의 순수한 발로이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나 사회풍조를 반영하게 마련인 것이다.

이와같은 유배한시에 나타난 현실인식은 바로 제주섬에 유배된 광해조 때 桐溪 鄭蘊(1569-1641), 숙종 때 北軒 金春澤(1670-1717), 영조 때 悔軒 趙觀彬(1691-1757), 정조 때 靜軒 趙貞喆(1751-1831) 등의 한시에서도 쉬 찾아볼 수 있다. 유배자들이 유배지에 이르러 시에 경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3) 앞의 책, p. 83.

4) 앞의 책, p. 92.

그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해 있는 불화와 괴리감을 극도로 조화된 시의 세계를 통해 내면적으로 극복하려는 생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貧女吟

縞衣貧女不爲容	호의 입은 가난한 아낙, 화장도 하지 않고
燈下持針事補縫	등불 아래서 헌옷 꿰매는 바느질 하네.
夜久假眠衣不解	밤깊어 잠자는 거름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여
明朝貸粟又孤春	밝은 아침 빌려온 조를 또 혼자 방아 찧는구나.

〈桐溪集·卷1〉

桐溪 鄭蘊의 7언절구 「貧女吟」이다. 副司直 鄭蘊은 계축옥사로 인해 대북과가 광해군을 옹립하고, 불과 8세 밖에 아니된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서인으로 강등시켜 강화섬으로 유배하고 사사한 일이 불충하다고 직간하였다. 그리고 영창대군을 죽인 鄭杭을 엄히 죄로 다스릴 것과 영창군을 대군(大君)의 예로 후하게 장례 치루고 사후(死後) 추증할 것을 강력하게 상소하였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광해군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제주섬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되어 9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⁵⁾ 그는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에 일관한 사대부로서 훗날 병자란 때는 척화(斥和)로 일관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울분으로 스스로 목숨 끊을 것을 피하기도 한 강직한 사대부이다.

7언시 「貧女吟」은 그 시제가 상징하듯 제주섬에서의 가난한 여인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유배지 제주섬 대정 고을의 한 빈한한 아낙네가 긴긴 밤 눈부칠새 없이 헌옷을 꿰매느라 바느질하고, 이른 새벽에 어느 이웃집에서 빌려온 조를 혼자서 외로이 방아 찧는다. 가난 속에 허덕이는 한 아낙이 밤새도록 바느질 하는 모습과 방아 찧는 소리는 바로 여인의 아픈 가슴을 방아찧듯 찧는가 하면, 유배된 桐溪의 외로운 가슴 속 깊이에도 한맥원류(恨脈怨流)를 찧는 것으로 그 느낌이 한층 더할 것이라. 가난한 제주섬의 아낙네의 모습을 연민의 정으로 표백하고 있다.

이어 5언율시 「村女杵歌」에서도 桐溪가 이향(異香) 짙은 유배지 제주섬 대정

5) 「光海君日記」 권11. 6년 甲寅 2월 丙午 “兩司語 鄭蘊 極邊安置”
「西宮日記」 卷之下 8권 pp.7~17.

고을의 생활의 일면을 영출(詠出)하였다.

村女杵歌

土俗無春鑿	이 지방에 쌀짚는 물방아가 없어서
村娥抱杵歌	마을 아낙네 절구노래 부르네.
高低如有調	높고 낮음의 가락이 있고
斷續似相和	끊일락 이을락 서로 어울리는 듯
欲解須憑譯	알 수 없어 통변에게 물었더니만
頻聞漸不呵	자주 들음에 차차 웃질 않아
凄涼曉月下	처량하다, 새벽달에 잠 못 이루니
遠客髮先皤	귀양 온 나그네 머리만 세누나.

〈前掲書·卷1〉

제주도 민요의 질량이 노동요에 있다면, 이 5언율시 「村女杵歌」는 그러한 노동요를 듣고 느낀 정감을 표백한 작품이다. 새벽날까지 맷돌방아를 짚는 그 시골 아낙의 구슬픈 소리를 들으며, 桐溪는 잠 못 이루면서 내심으로 연민의 정에 젖는다. 그러한 연민의 정이 깊어 갈수록 달빛 아래 자신의 귀밑 털이 희어짐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처해진 한계에 대하여 자탄해 본다. 이어 5언율시 「兒尸久浦口惻然悲之」에서 보면 아이의 시체가 포구에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하여 이를 슬퍼한다.

風雪津頭夜	바람과 눈이 진두해 오는 밤에
孤魂底處依	외로운 혼은 어느 곳에 의지하리
勉忘忘不得	잊으려 애쓰나 잊지를 못하네.
禁淚淚還揮	눈물을 금하려하나 도리어 눈물이 뿌려진다.
暴露肌應凍	모질게 버렸으니 몸은 응당 얼었을 걸
歸藏日漸違	돌아가 장사할 날이 점점 어겨시니
中宵撫膺坐	밤중에 가슴을 쓸면서 앉았는데
霜月照柴扉	서리같은 달은 가슴을 비추네.

〈前掲書·卷3〉

어느 포구에 던져진 어린 아이 시체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

주섬 대정 고을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상의 일면을 볼 수 있고, 불운하게 유배된 자신의 처지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불안한 정감을 토로하고 있다.

濟州所見

靑木綿裙短布褲	색바랜 찢어진 치마를 입어
葵田閨氏淚潛吞	葵田의 아낙들은 눈물로 삼다.
朝朝約伴雙篁公	이른 아침 대바구니를 들고
採得畦頭首宿根	야산에 가서 풀뿌리를 캐며 연명하네.

〈北軒集·卷3〉

北軒 金春澤의 7언시 「濟州所見」이다. 그는 숙종 32년(1706) 장희빈 소생의 세자(景宗)를 모해했다는 혐의로 제주에 유배되어 3년간을 지낸다.⁶⁾ 北軒은 제주목의 州妓 吳眞의 집이 적소로 정해졌으나 그의 가족들은 정의현으로 유배되는 불운을 겪는다. 그는 유배생활동안 자기의 결백과 충성심을 호소하여 멀어진 군왕의 총애를 다시 찾고자 하는 내용의 유배가사 「別思美人曲」⁷⁾을 창작하기도 한다. 가사의 시상은 기본적으로 松江의 「思美人曲」과 흡사한 점이 있어 예술성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 감이 있으나 시어가 그것보다 평이하다는 것이 특색이다. 北軒은 제주에서 유배생활 동안에 쓴 유배한시를 수록한 「囚海錄」을 남겼다.

7언시 「濟州所見」은 北軒이 유배생활을 통해 유배지 제주섬의 아낙네들의 매우 어렵고 딱한 생활을 직접 보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정감을 표출하였다. 이른바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여 연민의 정감을 토로한 것으로 제주섬의 아낙네들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눈물로만 생활하는 모습, 못 입고 못 먹어서

6) 「肅宗實錄」 권44, 32년 丙戌 8월 丁未條 “上曰以濟州地定配可也”

7) 종래 「北軒集」 권4 論詩文條에 “余來濟州 又以謫作別思美人曲 追和松江兩詞”란 대목이 있다고 한 것을 朴魯春 4人共編 「歌辭文學全集」(서울:精研社, 1961), p.153. 林基中 「朝鮮朝의 歌辭」(서울:成文閣, 1979), p.171. 徐元燮 「歌辭文學研究」(대구:형설출판사, 1979), p.188 등에 인용되고 있는데 이는 권4 論詩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16 論詩文에 있는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플뿌리를 캐어 연명하는 비참한 생활고를 표백하여 연민해 하고 있다. 이어 그의 5언율시 「濟州雜詩」其 18에서 보면

濟州雜詩 其 18

或有宦遊客	여기에 부임해 온 관원들은
留連不憶歸	머물고 돌아가려 하지 않네.
醇醪添氣象	아름다운 술로 흥을 돋우고
紅粉倍光輝	미녀들이랑 빠져 들어선
良馬常多取	양마를 많이 빼앗으며
潛珠亦暗飛	진주를 또 몰래 뇌물로 빼앗는다.
島嶼何所望	섬사람들, 무엇이 소망일까
御史有霜威	위엄있는 어사 출두는 언제쯤이랴.

〈前掲書·卷3〉

지리적으로 제주섬은 절해고도로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부정과 탐학이 저질러 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 민폐가 감추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부임해 오는 무관 출신의 수령의 경우 무술에는 뛰어났을 망정, 학문적으로는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선정으로 제주섬 사람들을 다스리기 보다는 탐욕에만 일삼은 경우가 많았다.⁸⁾

곧 세종 때 金爲民⁹⁾, 高得宗¹⁰⁾, 예종 때 金勿¹¹⁾, 중종 때 金錫哲¹²⁾, 李耕云¹³⁾ 등이 정부에 올린 폐막장은 바로 당시의 수령과 토호들에 의한 민막을 여실히 예증해 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北軒은 「濟州雜詩」其 18에서 제주 목안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관원의 횡포를 본대로 고발하고 있다. 제주섬 사람들이 매양 양마를 많이 빼앗기고 진주를

8) 秦東赫 「李世輔의 哲宗朝 現實批判時調考」(「東方學志」 제30집, 연세대, 1982. p. 219.

9) 「世宗實錄」 권 36, 9년 6월 丁未條

10) 「世宗實錄」 권 90, 22년 8월 己卯條

11) 「成宗實錄」 권 247, 21년 11월 癸未條

12) 「中宗實錄」 권 19, 8년 12월 庚申條

13) 「中宗實錄」 권 41, 16년 3월 壬戌條

뇌물로 빼앗기는 그 무시무시한 관원의 횡포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폭로하기도 한다. 이것은 제주섬 사람들의 뼈저린 아픔을 함께 하는 北軒의 현실 인식이며 바로 역사의식의 일면을 보여 준다 하겠다. 이어 5언율시 「濟州雜詩」其 19에서 보면 제주섬 사람들에 대해 연민해 하는 그 정감이 한층 더 길다.

濟州雜詩 其 19

彈丸孤島內	탄환처럼 한 외딴 섬안에
民事自艱難	백성들의 생활 간난 뿐이네.
不料秋蝗作	가을엔 병충으로 농사도 안되고
還承夏雨乾	여름엔 장마 가뭄으로 연이없도다.
逐臣江水遠	유배된 이몸 강수는 멀어
葛履曉霜寒	차가운 서리가 내리면 내 마음만 아프다.
向者祈穰苦	풍년이 되어지라 빌어본다.
村村護築壇	마을마다 제단을 쌓으니 그 심정 애달프구나.

〈北軒集·卷3〉

북헌은 제주섬 사람들에 대한 방관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인식을 통한 구체적인 관심에서 우려나온 진정을 표백하고 있다.

제주섬은 척박한 땅으로 농사도 제대로 아니되고, 섬사람들은 해마다 식량난을 겪었다. 세종 때 큰 흉작이 잇달자 연명해야 하는 한 수단으로 본토로 출륙한 일이 잦았다.¹⁴⁾ 곧 제주섬의 인구가 63,000여명이던 것이 23,000여명으로 상당히 감소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자 1620년대에서 1830년대까지 2백여년간 출륙이 금지되기도 하여 이른바 암흑기간이었다.¹⁵⁾ 여기에 관원의 횡포에 시달리고 나니 제주섬 사람들은 실로 행정 부재의 상황 속에서 선정과 풍년을 바라고 염원하는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빈한한 제주섬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위정자는 없어도 그러한

14) 「世宗實錄」 권70, 17년 乙卯 12월 己酉條

15) 拙稿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 濟州島를 중심으로 -」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82, p. 33참조.

현실을 인식한 유배인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었다. 다음 그의 7언 절구 「絶糧漫吟」에서도

絶糧漫吟

悠悠萬事任天公	느긋이 만사를 하늘에 맡기니
五載窮溟困殺儂	다섯해 궁한 바다살이가 나를 어렵게 하누나
更向室人相笑罷	집 사람을 향하니 서로 괴면쩍은 웃음 그치나
孟光無粟可親春	맹광은 곡식 없어도 가히 방아 찼던전만.

〈前掲書·卷3〉

바로 절량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제주섬 사람들의 정황을 노래한 것으로 내재적으로 연민해 하는 정감이 잘 표백되어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주섬은 땅이 원래 화산회토질이므로 농토가 매우 척박하고, 환해고도로 태풍의 통로인 관계로 해마다 재해와 흉작이 계속 되었다. 섬 사람들은 항상 기근과 싸워야 했고, 이는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한 섬사람들의 생활고를 인식하여 시로 표출하였다는 것은 유배된 사대부의 마지막 양심의 호소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이어 그의 5언율시 「資糧既盡」에서도 그러한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고는 더 한층 짙게 표출되고 있다.

資糧既盡

我貧欲乞食	내 가난해 구걸하고자 하나
亦無瓢可持	또한 가져다닐 표주박도 없구나.
主人數畝田	주인이 몇 이랑 밭이나마
田瘠蝗自肥	땅은 척박하고 蝗蟲만 질로 살렸구나
天之所試我	하늘에서 나를 시험하는 것은
固有甚於飢	진실로 굶주림에서 심함이 있구나.
棄置勿復道	버려두고 다시 말하지 말자
商聲聊此詩	가을에 애오라지 이 시뿐이로구나.

〈前掲書·卷2〉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해 줄 수 없다는 속언이 있다. 가난해서 구걸하고자

하나 구걸하기 위해 가져 다닐 표주박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함이 극심한 지경이다.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자탄한 정감도 표출되고 있다고 하겠지만 복현의 눈에 비친 제주섬 사람들의 생활고에 대한 현실 인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땅은 척박하고 황충(蝗蟲)만 절로 살찌는 형편이고 보면 농사는 황재(蝗災)가 극심하고 흉작이 연속될 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섬 사람들은 가을을 맞이한다. 결실도 없는 그 가을소리에 애오라지 시 한편을 남긴다. 이는 내재적으로 연민의 정을 표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유배한시는 아니지만 금오랑으로 제주섬에 온 영조 때 石北 申光洙(1712~1775)는 「濟州乞者歌」란 한시를 지은 바 있다.

濟州乞者歌

白頭蠻家女	흰 머리 蠻家의 아낙과
焦髮蠻家兒	焦髮의 蠻家 아이들
累累爲群十數人	累累이 무리 지어 십수인에 이르는데
皆着半鞵黃狗皮	모두 半鞵의 누렁이 갈옷을 입었네.
一身枯黑皮粘骨	一身은 마르고 짓눌어 살가죽이 뼈다귀에 붙어 있고
飢不成音細如絲	주리어 소리 내지 못하니 가늘기가 실 같구나.
口稱使道活人生	입으로 일컫기를 사또는 사람 목숨 살린다건만
乞飯公庭日三時	밥 빌러 관아 뜰에 늘어섬이 하루 세끼니일세.
赤棍牌頭噴如雷	赤棍을 치는 牌頭의 매 소리는 우뢰와 같고
曳出門外鳴聲悲	관문 밖으로 끌려나와 우는 소리가 비통하구나.
我叱牌頭且莫禁	내가 牌頭를 꾸짖지만 또한 금할 수 없네.
放使近前而門之	앞에 시중 드는 사령을 놓아 물어 보았네
海島土博頽歲荒	바다 섬의 땅이 부박하여 자주 해가 흉년이 드니
牛馬少者多流離	소와 말이 적은 자는 많이 떠돌아다닌다네.
經冬入春半仆死	겨울 지나 봄이 들면 반쯤은仆死하였거나
未死惟苦腹中饑	죽지 않았으면 배 속의 굶주림으로 괴로움 겪는다네.
我聞此語不忍食	내 이 말을 듣고 차마 먹지 못하여
片肉餘飯每均施	작은 편육과 남은 밥을 매양 고르게 배꼈네.
爾亦吾王之赤子	너희 또한 우리 임금의 자식들이라
聖化無外唯一視	임금님 덕화는 안팎없이 하나 같이 본다네.

肅宗船轉三南粟
越海年年哺不死
至今島民泣先王
今上繼之尤恤爾
積米常發羅里倉
問瘼新歸繡衣使
都事雖客也王臣
智以官人侮王民
眼前所見適爾輩
何限三州如爾人
況復風雨北船阻
米貴絕無如今春
近聞
髮帽涼臺不論
直富者
但用小米三升得
此邦富者能幾何
又失今農亦溝壑
耽羅乞兒聞我言
一時掩面啼向北
北方雖遠父母邇
萬里明見耽羅國

숙종 임금의 삼남 지방의 곡식을 배로 옮겨서
바다 건너 해해마다 먹이여 죽지 않았음일세.
지금까지 섬 백성이 선왕의 덕에 감읍하는데
지금 임금님도 이를 이어 더욱 너희들을 구휼하신다니.
쌓아둔 곡식을 항상 여러 마을 창고에 베풀었고
폐막을 물어 어사는 새롭게 돌아간다네.
都事는 비록 손님이지만 또한 임금님 신하로
관인이라고 임금님 백성을 업수이 여기라.
눈 앞에 보는 바 바로 너희 무리일세.
어찌 3개 주만이 너희와 같을 것인가
하물며 다시 비바람 불어 북쪽에서 오는 배가 막힐세.
쌀이 귀하고 절종됨이 이번 봄 같은 때가 없다니.
요즈음 들으니
종모와 양태 할 것 없이
부자라고 하면
단지 小米 三升 얻는 것으로써 일컬으니
이 고을 부자를 능히 얼마나 될지 알겠으며
또 이번 농사를 망쳤음과 시체가 굴러다남을 알겠도다.
탐라의 저지 애들이 내 말을 들으면
일시에 얼굴을 가려 울며 북쪽을 향할 것이리
북방이 비록 멀다고 하나 부모는 가까운 것이니
만리 먼 곳에서도 밝게 탐라국을 살펴보소서.
〈石北集· 卷4〉

이것은 제주 섬사람들의 비참한 생활고를 적나라하게 표백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언제부터인지 일컬어 제주섬을 삼다 삼무(三多 三無)의 섬이라고 했다.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가 많아서 삼다요, 대문이 없고, 도적이 없고 거지가 없어서 삼무라고 하였는데, 이 거지가 없다고 제주섬에 “일신은 마르고 짓눌어 살가죽이 뼈다귀에 붙어 있고, 주리어 소리 내지 못하니 가늘기가 실 같으며, 밥 빌러 관아 트락 늘어섬이 하루 세끼며 관문 밖으로 끌려나와 우는 소리가 비통하다(一身枯皮粘骨 飢不成音細如絲……乞飯公庭日三時……曳出門外鳴聲悲)”고 표백한 대목은 삼무(三無) 중의 결무(乞無)를 무색하게 하는 바가 있다.

耽羅雜詠 其 14

村女露身裾不成 시골아낙 옷자락은 여미지 않아 몸을 드러내고
 遠泉波處負瓶行 멀리 샘물 길어 허벅지고 가는구나.
 兩妻一家生涯苦 처·첩 한집안 살이 괴로운데.
 日暮杵歌多怨聲 날 저물어 방아노래 원성처럼 들리네
 <悔軒集·卷4>

悔軒 趙觀彬의 7언절구다. 그는 숙종 17년(1691)에서 영조 33년(1757)때의 문신이다. 그는 영조의 탕평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대정현에 유배당하였다. 신임사화(1721~22)로 소론에 의해 희생된 趙泰采의 아들이다. 경종이 즉위하자 건강이 나빠 세제(영조)에게 대리청정토록 한 趙泰采를 비롯한 노론과 金昌集·李頤命·李健命 등 4대신이 상주한 것이 역모에 몰리어 金一鏡 등 소론에 의해 숙청당했다. 이에 한 집안이 연좌되어 형 昇彬은 대정현으로, 觀彬은 나로도(羅老島). 아우 謙彬은 거제도, 형수는 흑산도로 유배당하는 불운을 겪는다.

영조가 즉위하자 모두 석방되어 회헌은 관직에 재등용, 영조 7년(1729) 탕평책을 시비하여 소론을 탄핵하다가 대정현에 유배당하게 되는 것이다.¹⁶⁾

회헌의 「耽羅雜詠」其 14는 제주섬 아낙네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노래하여 내재적으로 연민해 하고 있음을 본다.

제주섬은 乾川이어서 식수난이 심하다. 먼 곳의 샘물을 허벅지로 길어 오는 일, 방아로 보리, 조를 찧는 일 등 그것이 하루 일과의 시종인 것이다. 날 저물어 방아짚는 것은 내일을 예비한 것이다. 한 집에 처·첩과 함께 살림하니 산다는 것이 말이 아닌 괴로움 그것이다. 제주의 여성들이 부지런하다고 하나 실로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삶을 누릴 수 없기에 그것이 철리(哲理)요, 숙명적인지도 모른다.

방아를 짚게 되면 반드시 노래를 한다. 맷돌방아 노래는 그 음조가 애달프게 들리고 방앗일 역시 괴로워 그것이 원성처럼 느껴졌을 지도 모른다.

읍지(邑誌)의 풍속에도 방앗노래 소리는 괴롭게 들린다. 아낙네가 절구를 짚을 때 반드시 방앗노래를 한다. 그 음조가 심히 괴롭게 들린다. 맷돌방아를 할

16) 「英祖實錄」 권30, 7년 辛亥 10월 丁巳條

때도 그렇다.¹⁷⁾ 라고 한 것을 보면, 悔軒의 7언절구 「耽羅雜詠」其 14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이어 悔軒은 「歎潛水女」에서 해녀들의 비참상과 관원들의 민폐를 폭로하고 있다.

歎潛水女

潛水女潛水女 赤身潛水無寒暑 臘月海氣冷徹骨 手摘決明干彼渚 昨日摘今日摘 決明大小不盈百 女兮女兮何自苦 身役又兼官今促 爺孃桎梏郎亦答 不及明朝大患隨 水寒病作未暇顧 往往驚墮腹中兒 苦無如苦無如 何必決明海多魚 海雖多魚皆讓味 誅求最急一村漁 豈獨黃堂鼎俎侈 爲是朱門苞苴美 苞苴多少生愛憎 黜陟分明判於此 女本弱力力已竭 欲訴天門遠未達 客莫笑客莫笑 在昔紅顏今赤髮	잠수녀여 잠수녀여 발가벗은 몸으로 물에 들어 한서조차 없구나 설달 바닷기운은 차갑기가 뼈속까지 뚫어 오는데 저편에 까지 가서 손으로 전복을 따와야 하네 어제 또 따오고 오늘도 따와도 전복의 크고 작음이 백에까지도 차지 않구나 여자여 여자여 어찌 이렇게 본디 고초스러우나 신역에다 또 관령이 겹쳐 독촉하여 대니 애비 에미는 차꼬나 수갑 채워지고 지아비 또한 곤장에 서달리네. 내일 아침까지 못 미쳐 큰 환이 따르겠으니 물이 차고 병이 나도 돌아볼 틈조차 없도다. 이따금 놀라 뱃속에 가진 아이 낙태가 되며 고통이 없음이여 고통이 없음이여, 왜 하필 많은 바닷고기 중에서도 전복이란 말인가 바다에 비록 고기가 많으나 모두 맛에서 덜하다. 가렴주구가 한 마을의 고기잡이에서 매우 급하구나. 어찌 홀로 황당의 술과 도마만 사치스러우나 바로 실문의 선물포장이 아름답도다. 선물꾸러미의 많고 적음이 아끼고 미워함을 낳으니 내쫓아 버림은 분명히 여기에서 판가름 나네 여자는 본디 힘이 약한데도 이미 힘을 다해 버렸으니 임금께 하소연 하려 해도 너무 멀어 도달할 수 없구나. 나그네여, 나그네여, 웃지를 마소 어제의 홍안이 오늘엔 적발이 되누나.
--	--

17) 邑誌 “杵歌聲苦 女人作隊 擣春必發杵歌 音調甚苦 旋磨亦然”

耽羅諳者舊達官	탐라에 유배된 자들은 옛날 높은 벼슬했던 관리들인데
目見不覺發一嘆	눈으로 보고는 스스로 장탄식 내심은 미처 깨닫지 못하네
我則仁心未忍啖	나는 어진 마음에 차마 먹을 수 없으니
莫將決明登客盤	장차 전복을 나그네 밥상에 오르게 말지어다.

〈前掲書·卷3〉

悔軒의 古體詩 「歎潛水女」의 전문이다. 제주 해녀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관리들의 민폐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어 현실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제주 해녀들은 실탄에 바다 기운이 차갑고 뼈 속에 스며드는데 잠수한다. 본디 힘이 나약한데도 해녀들은 병으로 이미 힘이 다한 가운데 관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 잠수하고 전복을 따야 했다. 관원들에게 바쳐야 할 어획물이 적을 때 애비와 어미는 차꼬와 수갑이 채워지고 지아비 또한 곤장에 시달려야 하는 위험 속에 사는게 해녀들의 비참한 일상생활 전부인 것이다.

가림주구가 한 어촌을 뒤엎은 것처럼 행해지고, 뇌물이 많고 적음이 애증의 척도가 되며 해녀들의 고향로 관원들은 사시사철 도마와 도마칼만 사치스러울 정도로 지낸다. 이런 정상을 임금에게 하소연하려 해도 제주섬에서 왕도는 너무 거리가 멀어 도달할 수 없음을 탄식해 보는 것이다. 그는 현실인식을 통하여 바로 해녀들의 비참상에 연민의 정을 표백하고, 관원들의 민폐를 폭로 고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달리 유배한시의 국문학적 의의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유배한시는 아니지만 앞서의 石北 申光洙는 「潛女歌」란 古體詩를 지은 바가 있다. 이것은 제주 해녀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그는 제주도에서 제주의 풍토·산천·조수·항해 상황 등을 적어 「耽羅錄」을 지었다. 석북의 「潛女歌」는 18세기 후반의 제주 해녀들의 숨비질 풍속과 그 실상을 표백한 古體詩다. 앞에서 본 회현의 「歎潛水女」와 관련지어 볼 때 충분히 제주해녀의 비참상을 이해하게 된다.

潛女歌

耽羅女兒能善泅	탐라 아낙들은 잠수질에 능하여
十歲已學前溪游	열살에 벌써 앞 시냇가에서 배우네
土俗婚姻重潛女	이 지방 풍속엔 신부감에 해녀가 으뜸이라며

父母誇無衣食憂 부모들은 의식걱정 없다고 자랑을 하네
 我是北人聞不信 나는 북쪽 사람이라 듣고도 믿지 않았건만
 奉使今來南海遊 왕사로 이제 남쪽 바다에 와서야 알았도다.

首聯은 신부감으로 해녀가 으뜸이 된다고 표백하였다. 제주섬 아낙네들은 숨비질을 불과 어린 열 살부터 배워 보통 80세까지 해녀 생활을 하는 형편이다.

제주 해녀들은 전북·소라 등을 따내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부감으로는 제일 적격이라는 것이다. 원래 제주섬은 척박한 토질에 밭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이다. 흉년이 들면 굶어죽음을 모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해녀들은 바다와 싸워서 얻은 수확물로 의식 걱정을 해결해 주므로 제주여성은 남성보다 상위에 놓이는 관념이 승화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제주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섬이다. 그 이유는 바닷일에 종사한 남성들이 항해 중 배가 부서지고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대체로 섬사람들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고래의 먹이가 된다고 하여 도리어 본토와는 달리 계집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를 봉양하니 기뻐한다는 것이다. 石北은 이런 제주섬의 풍속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표출하였다. 석북이 제주에 오기 100여년전 李健은 그의 「제주풍토기」에서 제주섬은 해녀가 미역을 채취하고 전북을 잡을 때 발가벗은 몸뚱아리에 전혀 부끄럼없이 남녀가 상잡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⁸⁾ 第2聯은 바로 이런 해녀가 잠수질을 하는 모습에 대하여 표출하고 있다.

城東二月風日暄 성동쪽 2월에 바람과 날씨가 따뜻하고
 家家兒女出水頭 집집의 아낙네들은 물가로 나왔도다.
 一楸一筴一匏子 갈구리 하나 채롱 하나 뒤편막 하나로
 赤身小袴何曾羞 알몸엔 조그만 잠방이를 입고 부끄럼이나 타 보았던가.
 直下不疑深靑水 바로 아래 길푸른 바닷물에 겁도 없이 들어가니
 紛紛風葉空中投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공중으로 뛰어 내리는구나
 北人駭然南大笑 북쪽 사람은 놀라고 남쪽 사람은 웃고
 擊水相戲橫乘流 물장구 치고 서로 놀며 가로로 물결을 타네
 忽學鳧雛沒無處 갑자기 오니 따오기 모양 간 곳이 없고

18) 李健「濟州風土記」“所謂僭女 赤身露體 遍滿海汀 持鎌浮海 倒入海底 採蠶曳出 男女相雜 不以爲恥”

但見匏子輕輕水上浮 뒤옹박만 물위에 둥실둥실 떠 있도다
 斯須湧出碧波中 조금있다 창파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며
 忽引匏繩以腹留 급히 뒤옹박 끈을 당기어 배에다 매며
 一時長嘯吐氣息 한순간 긴 휘파람 큰 숨에
 其聲悲動水宮幽 그 소리 슬프게 수궁으로 메아리 치네

해녀들이 깊고 푸른 바닷물에 몸을 던질 때 남쪽 사람들은 웃어대고 북쪽 사람들은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한참 후에 물 위에 올라와 뒤옹박을 부둥켜 안고서 긴 휘파람을 한다. 그 소리가 슬프게 아득히 바닷물 속으로 메아리쳐 간다. 그것은 노동의 상징이라기보다 사생간의 몸서리치는 절박한 싸움이었을 것이다. 石北이 해녀에 대해 연민해 하고 놀라운 것은 실로 자연적인 인지상정에서 우러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第3聯은 잠수질의 비참상과 당시 균역법(均役法)이 있었으나 해녀들이 겪는 고통을 연민해 하는 내용을 표백한 것이다.

人生爲業何須此	인생이 어찌 이런 업을 하는지
爾獨貧利絕經死	한갓 돈때문에 죽음을 가볍게 하는가
豈不聞陸可農蠶山可採	어찌 못들었느냐, 육지에서 농잠하고 산에서 채벌하는 줄을
世間極險無如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곳 물과 같은 데가 없다.
能者深入近百尺	능숙한 자 물 속 백척이나 들어가기도 하여
往往又遭飢蚊食	이따금 굶주린 고래떼를 만나 먹히우기도 한다네
自從均役罷日供	균역법따라 날마다 관에 바치는 일은 없어져
官吏雖云與錢覓	관리도 비록 돈을 주고 산다고 이르네
八道進奉走京師	팔도에 진봉하고 서울에 보내자면
一日幾駘生乾腹	하루에 몇점이나 생전복 건전복을 내야 하는가

石北은 해녀가 깊이 백척이나 되는 물속에서 작업중 고래에게 먹히는 불상사가 빈번했던 관제로 본토에서 처럼 농잠을 권장하려 했다. 이는 세종 때 陳遵이 상소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제주 토지가 척박한데 백성은 조밀하여 농상에 힘쓰지 아니하고 섬과 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장사하여 생계를 삼고 있다”¹⁹⁾

19) 「世宗實錄」 원년 7월 丙辰條 “或謂濟州土瘠民稠 不事農桑 以水陸所產商販爲生”

라고 하였고 李衡祥의 「南宦博物」에서도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다. 18세기 후반기에는 균역법으로 바닷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었다고 하나 해녀뿐만 아니라 어부들의 세금도 관원들의 관을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 때문에 거의 혜택이 없었다고 한다. 곧 石北은 제3연에서 해녀의 사정을 통찰하여 그런 위험스런 일로 수확한 해산물로 진상하고 나면 그 벌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비참상을 노정시키면서 해녀에 대한 연민의 정을 표백하고 있다.

結聯은 관원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石北 자신의 각성을 노래하고 있다.

金玉達官廂	금옥은 관리의 포주이고
綺羅公子席	기라는 공자의 자리로다.
豈知辛苦所從來	어찌 먹는게 괴로워 오는 바 알겠느냐.
纔經一嚼案已推	겨우 한 입을 씹어보다 상을 물리겠다.
潛女潛女爾雖樂	해녀, 해녀 그대들은 비록 즐거워 하지만
吾自哀	나는 슬구나
奈何戲人性命	어찌 사람의 목숨을 농락하여
累吾口腹	내 입과 배를 채우겠느냐
嗟吾書生	아서라, 나와 같은 선비들은
海州靑魚亦難喫	해주의 청어도 먹기 어려워
但得朝夕一蕪足	조식 밥상에 부추나물만 올라도 흐뭇하겠네

〈石北集·卷4〉

이 연은 해녀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잡은 고기로 식사를 할 때 석북은 한입 베어 물고 상을 물리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관원들이 해녀들의 뼈아픈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 뼈 속 깊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양심이 무디다고 지적하였다. 석북은 해녀가 숨비질을 할 때 즐거이 떠들어 대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슬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농락하여 자신을 배를 채워서 안된다고 하여 관원들의 맹성을 촉구하고 있다.

耽羅雜詠 其 17

潛女衣裳一尺短	해녀의 옷은 겨우 한자 남짓 한데
赤身滅沒萬頃波	알몸으로 창파에 죽도록 물질을 하네

邇來役重魚難得 두루 나와 일은 고되게 하나 고기잡기 어려워
 鞭扑尋常幾處衙 늘상 관아에서 얼머나 채찍을 맞아야 하느뇨.
 〈靜軒瀛海處坎錄·卷4〉

靜軒 趙貞喆의 7언시 「耽羅雜詠」 其 17이다. 그는 영조에서 순조 때까지 살았던 문신이다. 정조 1년(1777) 洪國榮의 세도와 姜龍輝 등이 정조를 시해하려고 한 사건에 연루되어 그 해 9월 11일 제주에 유배되었다.²⁰⁾ 제주섬안의 곳곳에 이배(移配)하면서 순조 5년(1805) 4월 나주로 양이(量移), 동왕 10년(1810)에 석방되기까지 유배사상 가장 긴 33년간의 유배 생활을 한다. 그의 문집 「靜軒瀛海處坎錄」이 있다. 靜軒은 「耽羅雜詠」 其 17에서 제주섬의 해녀의 고역과 관에 진상 부담해야 하는 고난을 노래하고 내재적으로 연민해 하고 있다.

곧 해녀에게 과하여진 진상용 어물이 지정한 숫자를 상납하지 못할 때 관아에 불리어 추궁당한 끝에 비참하게 채찍 매를 맞아야 했던 해녀의 어려운 생활과 관의 학정을 폭로하고 있다. 곧 悔軒이 지적한 “신역에다 또 관영이 겹쳐 독촉하여 내니 애비와 에미는 차꼬와 수갑 채워지고 지아비 또한 곤장에 시달리는 구나(身役又兼官令促 爺孃桎梏郎亦笞)”라고 한 어려운 상황을 실감케 한다.

한편 靜軒은 5언율시 「歎島俗」에서 섬사람들의 게으름을 지적하는 한편 제주섬의 아낙네들이 하는 일에 너무 과중하여 과로하고 있음을 동정하여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가 하면, 성은이 이들에게까지 고루 미치길 기대하는 심정을 다 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歎島俗

從古耽羅國	옛적부터 탐라국은
居民自懶慵	게으른 자들이 살고 있어서
大都趨末利	이롭지 않다고 본토로 달아나
余事視三農	내가 본일은 세가지 농사인데
婦女惟耕獲	부녀가 오직 경작과 수확도 하네.
晨昏且臼舂	아침 저녁 다시 맷돌방아도 짚으니
蠻風誰一變	누가 이 천한 풍속 한번 바꿔 놓으리.

20) 「正祖實錄」 권4, 원년 丁酉 8월 甲辰條

聖德今時雍 성인이 금시 화합이 있을 것인데.
 〈前揭書·卷4〉

III

유배문학은 특히 제주섬을 중심으로 한시에 나타난 현실인식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에 유배된 鄭蘊·金春澤·趙觀彬·趙貞喆 등의 유배한시 속에 나타난 현실인식은 제주 섬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탐관오리에 시달리거나 환해성과 격절성, 협소성 등의 지리적 특성을 갖는 절해고도인 섬의 생활고, 그러한 섬사람들에 대해 연민의 정으로 일관하여 노래하고 있다.

둘째, 제주 섬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특히 해녀들의 어려운 생활고가 적나라하게 유배자들의 눈에 강렬하게 비추어졌다.

곧 해녀가 수확한 전복·고기 등 수산물에 대해 관원들이 갖은 착취를 일삼으므로 그것의 한 단면으로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셋째,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인식하여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그 실상을 시로 표출하였다는 것은 바로 유배지의 현지와 동화하려 했다는 노력의요, 그것은 유배지 문화권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네째, 조선조 봉건시대에는 개인의 가난은 개인의 소속한 계층의 숙명적 현상으로만 인식하였고 사회문제로 추궁되지 않았지만, 유배된 사대부의 한시를 통해 유배지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과 관원들의 폐단 등을 여실히 폭로하고 있음을 볼 때 유배인의 한 역사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사야 한다고 믿는다. 계속 이런 분야의 총체적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